



함께 꿈꾸며
배움이 삶이 되는 교육

이리남교육통신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자료

제 2023-102호

교무실: 063-851-1413
행정실: 063-843-1060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성 평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배부하오니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모두 동등한 인격적 주체로서 성장하고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 평등이란?〉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개성을 존중받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에 따라 서로 나누고 우열을 가리는 ‘성차별’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 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생활 속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여자와 남자는 달라야 해!”라는 고정관념은 옛날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행동을 막습니다. 성 역할에 갇히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게 대한다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 가족이 만드는 성 역할 고정관념

우리가 태어나 처음 접하는 세상인 가족은 성 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나를 대할 때, 딸과 아들로 나누어 대하거나 형제·자매가 여자다운 혹은 남자다운 모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가족의 태도는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예) 남자는 아파도 티 내면 안 돼~ 눈물 뚝 해.

여자는 다리를 모으고 앉아야지~

◎ 대중매체 속에 숨어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

TV 프로그램이나 웹툰, 인터넷 동영상 등 대중매체에서 여자, 남자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할수록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존댓말이 없는 영어 대화를 번역하면서 남편은 반말, 아내는 높임말 사용

똑같은 부모인데 남편은 이름으로, 아내는 누구 엄마로 구분

2

혐오,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혐오 표현을 배우고 따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친구들에게 ‘남자다운 척’, ‘센 척’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고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혐오 표현은 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약자의 위치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이동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인종차별 피해를 본 경험을 호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나 또한 혐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오는 나만 비켜 가지 않습니다.

혐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일!

내가 존중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3

성 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

성 평등은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을 떠나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면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에서 벗어날 때,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때,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가르는 대립과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것, 성 평등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나는 얼마나 양성평등(존중)한지 자신의 성존중 인지도를 한번 알아보세요.
아래 문장을 읽고 “예, 아니오”로 체크해 보세요.**

- ① 가정일은 여자가 주로 해야 한다. (예 / 아니오)
- ② 집안에서 모든 일에 남자가 우선이어야 한다. (예 / 아니오)
- ③ 여자는 암전해야 한다.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이나 남자는 울지 않는 거다, 통이 넓어야 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등의 말을 자주 한다. (예 / 아니오)
- ④ 아들이 간호사가 되길 원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 / 아니오)
- ⑤ 딸은 말 잘 듣는 숙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 아니오)
- ⑥ 여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집을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 아니오)
- ⑦ 남자아이 놀이와 여자아이 놀이는 구별되어 있다. (예 / 아니오)
- ⑧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이므로 여성은 남성이 중심인 사회에 적응하여야 한다. (예 / 아니오)
- ⑨ 남성이 여성보다 능력이 우수하다. (예 / 아니오)
- ⑩ 남자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으며 마음이 강해야 한다. (예 / 아니오)

결과는?

예 ()개,

아니오 ()개

결과는 뒷장에...

[결과 _ 나는 얼마나 양성존중 할까요?]

☆'예'가 7-10개. 위험경보!!

성고정관념이 심하신 편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된 생각으로 남녀차별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가 3-6개. 노란불!!

성차이를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을 조금 더 가지도록 해주세요.

☆'예'가 1-2개. 훌륭하세요!!

네! 양성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계속 양성존중에 앞장 서주세요.

일상에서 아들과 딸에게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발언들 (양성평등진흥원제공)

아들에게	딸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래? 사내자식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사내자식이 통이 커야지 사내다워야 하는 거야	공주같이 예쁜 딸 여자니까 옷차림이 단정해야지 여자니까 예쁘게 걷고, 예쁘게 말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집을 잘가지 설거지는 여동생한테 시켜라



- 자료발췌: 「청소년 성평등 가이드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 11. 13.
이 리 남 초 등 학 교 장